

[1] To the State Education Department,
주 교육부 귀하,

[2] I am writing with regard to the state's funding for the construction project at Fort Montgomery High School.

저는 Fort Montgomery 고등학교의 건축 프로젝트를 위한 주 예산과 관련하여 편지를 씁니다.

[3] Our school needs additional spaces to provide a fully functional Art and Library Media Center to serve our students in a more meaningful way.

저희 학교는 보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완전하게 제 기능을 하는 Art and Library Media Center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합니다.

[4] Despite submitting all required documentation for funding to your department in April 2024, we have not yet received any notification from your department.

2024년 4월에 귀하의 부서로 예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직 귀하의 부서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5] A delay in the process can carry considerable consequences related to the school's budgetary constraints and schedule.

과정상 지연은 학교의 예산 제한 및 일정과 관련하여 상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6] Therefore, in order to proceed with our project, we request you notify us of the review result regarding the submitted documentation.

그러므로, 저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제출 서류와 관련한 검토 결과를 저희에게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7]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귀하로부터의 답변을 고대합니다.

[8] Respectfully, Clara Smith Principal, Fort Montgomery High School

Fort Montgomery 고등학교 교장, Clara Smith 드림

[1] As I waited outside the locker room after a hard-fought basketball game, the coach called out to me, "David, walk with me."

내가 치열하게 싸운 농구 경기 후에 라커 룸 밖에서 기다릴 때, 코치가 "David, 나와 함께 걸자."라며 나를 크게 불렀다.

[2] I figured he was going to tell me something important.

나는 그가 나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말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3] He was going to select me to be the captain of the team, the leader I had always wanted to be.

그는 내가 항상 되기를 원했던 리더인 팀의 주장으로 나를 뽑으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4] My heart was racing with anticipation.

나의 심장이 기대감으로 빠르게 뛰었다.

[5] But when his next words hit my ears, everything changed.

그러나 그의 다음 말이 내 귀를 쳤을 때, 모든 것이 변했다.

[6] "We're going to have to send you home," he said coldly.

"우리는 너를 집으로 보내야만 해."라고 그가 차갑게 말했다.

[7] "I don't think you are going to make it."

"나는 네가 해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8] I couldn't believe his decision.

나는 그의 결정을 믿을 수 없었다.

[9] I tried to hold it together, but inside I was falling apart.

나는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했지만, 내면에서 나는 산산이 무너지고 있었다.

[10] A car would be waiting tomorrow morning to take me home.

내일 아침에 나를 집에 데려갈 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11] And just like that, it was over.

그리고 그렇게, 끝이 났다.

[1] For many of us, making time for exercise is a continuing challenge.

우리 중 다수에게 운동할 시간을 내는 것은 계속되는 도전이다.

[2] Between work commitments and family obligations, it often feels like there's no room in our packed schedules for a dedicated workout.

업무에 대한 전념과 가족 의무 사이에서, 우리의 빡빡한 일정들에는 운동에 전념할 여유가 없는 것처럼 종종 느껴진다.

[3] But what if the workout came to you, right in the midst of your daily routine?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일상 바로 한가운데에서 운동이 여러분을 찾아온다면 어떨까?

[4] That's where the beauty of integrating mini-exercises into household chores comes into play.

그것이 바로 간단한 운동을 집안일에 통합시키는 아름다움이 작동하는 지점이다.

[5] Let's be realistic; chores are inevitable.

현실적이 되자. 집안일은 불가피하다.

[6] Whether it's washing dishes or taking out the trash, these tasks are an essential part of daily life.

그것이 설거지하는 것이든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것이든지 간에, 이런 일들은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7] But rather than viewing chores as purely obligatory activities, why not seize these moments as opportunities for physical activity?

하지만 집안일을 순전히 의무적인 행위로 간주하기보다는, 이런 순간들을 신체 활동을 위한 기회로 잘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

[8] For instance, practice squats or engage in some wall push-ups as you wait for your morning kettle to boil.

예를 들어, 여러분의 아침 주전자에 끓기를 기다리면서 스쿼트를 연습하거나 벽에 대고 하는 팔 굽혀 펴기 몇 개를 시작해 보라.

[9] Incorporating quick exercises into your daily chores can improve your health.

짧은 운동을 여러분의 일상적인 집안일에 포함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

[1] When we see something, we naturally and automatically break it up into shapes, colors, and concepts that we have learned through education.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통해 배운 모양, 색깔, 그리고 개념들로 해체한다.

[2] We recode what we see through the lens of everything we know.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의 렌즈를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을 재부호화한다.

[3] We reconstruct memories rather than retrieving the video from memory.

우리는 기억에서 영상을 생각해 내기보다 기억을 재구성한다.

[4] This is a useful trait.

이것은 유용한 특성이다.

[5] It's a more efficient way to store information — a bit like an optimal image compression algorithm such as JPG, rather than storing a raw bitmap image file.

그것은 가공되지 않은 비트맵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기보다 JPG와 같은 최적의 이미지 압축 알고리즘과 약간 비슷하게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6] People who lack this ability and remember everything in perfect detail struggle to generalize, learn, and make connections between what they have learned.

이런 능력이 부족하고 완벽히 세세하게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일반화하고, 학습하고, 자신들이 학습한 것들 사이를 연결하려고 고군분투한다.

[7] But representing the world as abstract ideas and features comes at a cost of seeing the world as it is.

그러나 세상을 추상적 생각과 특징으로 재현하는 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희생하여 나온다.

[8] Instead, we see the world through our assumptions, motivations, and past experiences.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 동기 그리고 과거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9] The discovery that our memories are reconstructed through abstract representations rather than played back like a movie completely undermined the legal primacy of eyewitness testimony.

우리의 기억이 영화처럼 재생되기보다는 추상적 재현을 통해 재구성된다는 발견은 목격자 증언의 법적 우위성을 완전히 손상시켰다.

[10] Seeing is not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니다.

[1] In his Cornell laboratory, David Dunning conducted experimental tests of eyewitness testimony and found evidence that a careful deliberation of facial features and a detailed discussion of selection procedures can actually be a sign of an inaccurate identification.

David Dunning의 코넬 대학의 실험실에서, 그는 목격자 증언에 대한 실험을 수행했고, 얼굴 특징에 대한 신중한 숙고와 선택 절차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실제로는 '부정확한' 식별의 징후일 수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2] It's when people find themselves unable to explain why they recognize the person, saying things like "his face just popped out at me," that they tend to be accurate more often.

사람들이 "그의 얼굴이 그냥 나에게 탁 떠올랐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왜 그 사람을 알아보는지 설명할 수 없는 스스로를 발견하는 바로 그때 그들은 더 자주 정확한 경향이 있다.

[3] Sometimes our first, immediate, automatic reaction to a situation is the truest interpretation of what our mind is telling us.

때때로 상황에 대한 우리의 최초의, 즉각적인, 자동적인 반응이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석이다.

[4] That very first impression can also be more accurate about the world than the deliberative, reasoned self-narrative can be.

바로 그 첫인상이 또한 신중하고 논리적인 자기 서사보다 세상에 대해 더 정확할 수 있다.

[5] In his book Blink, Malcolm Gladwell describes a variety of studies in psychology and behavioral economics that demonstrate the superior performance of relatively unconscious first guesses compared to logical step-by-step justifications for a decision.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Blink'에서, 결정에 대한 논리적인 단계적 정당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의식적인 최초 추측의 우수성을 보여 주는 심리학 및 행동 경제학의 다양한 연구를 기술한다.

[1] Many forms of research lead naturally to quantitative data.

많은 종류의 연구는 자연스럽게 양적 데이터로 이어진다.

[2] A study of happiness might measure the number of times someone smiles during an interaction, and a study of memory might measure the number of items an individual can recall after one, five, and ten minutes.

행복에 관한 연구는 누군가가 상호 작용 중에 미소 짓는 횟수를 측정할 수 있고, 기억에 관한 연구는 개인이 1분, 5분, 그리고 10분 후에 회상할 수 있는 항목의 수를 측정할 수 있다.

[3] Asking people how many times in a year they are sad will also yield quantitative data, but it might not be reliable.

사람들에게 자신이 일년에 몇 번 슬픈지 물어보는 것 또한 양적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지만, 이는 신뢰할 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Respondents' recollections may be inaccurate, and their definitions of 'sad' could vary widely.

응답자의 회상은 부정확할 수 있고, '슬픈'에 대한 그들의 정의는 크게 다를 수 있다.

[5] But asking "How many times in the past year were you sad enough to call in sick to work?"

prompts a concrete answer.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직장에 병가를 낼 만큼 슬펐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까?"라고 묻는 것은 구체적인 답변을 유발한다.

[6] Similarly, instead of asking people to rate how bad a procrastinator they are, ask, "How many of your utility bills are you currently late in paying, even though you can afford to pay them?"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미루는 사람인지를 평가하도록 묻는 대신, "당신이 지불할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공과금 고지서의 납부가 현재 늦었나요?"라고 물어보라.

[7] Questions that seek concrete responses help make abstract concepts clearer and ensure consistency from one study to the next.

구체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추상적인 개념을 더 명확하게 만들고 한 연구에서 다음 연구 간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을 돕는다.

[1] The evolution of AI is often associated with the concept of singularity.

AI의 진화는 종종 특이점의 개념과 연관된다.

[2] Singularity refers to the point at which AI exceeds human intelligence.

특이점은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지점을 의미한다.

[3] After that point, it is predicted that AI will repeatedly improve itself and evolve at an accelerated pace.

그 지점 이후, AI는 스스로를 반복적으로 개선하고 가속화된 속도로 진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4] When AI becomes self-aware and pursues its own goals, it will be a conscious being, not just a machine.

AI가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목표를 추구할 때, 그것은 단지 기계가 아니라 의식이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5] AI and human consciousness will then begin to evolve together.

AI와 인간의 의식은 그러면 함께 진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6] Our consciousness will evolve to new dimensions through our interactions with AI, which will provide us with intellectual stimulation and inspire new insights and creativity.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AI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할 것이며, 이는 우리에게 지적 자극을 제공하고 새로운 통찰력과 창의성을 불어넣을 것이다.

[7] Conversely, our consciousness also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volution of AI.

반대로, 우리의 의식 또한 AI의 진화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8] The direction of AI's evolution will depend greatly on what values and ethics we incorporate into AI.

AI 진화의 방향은 우리가 어떤 가치와 윤리를 AI에 통합시키는지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9] We need to see our relationship with AI as a mutual coexistence of conscious beings, recognizing its rights and supporting the evolution of its consciousness.

우리는 AI의 권리를 인식하고 그것의 의식의 진화를 지지하면서, 우리와 AI와의 관계를 의식 있는 존재들의 상호 공존으로 볼 필요가 있다.

[1] Douglas Kirkland, known for his highly artistic portraits of Hollywood celebrities, was born in Toronto, Canada.

그의 할리우드 유명 인사의 매우 예술적인 인물 사진으로 알려진 Douglas Kirkland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났다.

[2] When he was young, he eagerly awaited the weekly arrival of Life magazine and discussed the photographs the magazine contained with his father.

그가 어렸을 때 그는 매주 "Life" 잡지의 도착을 간절히 기다렸고 그 잡지에 실린 사진에 대해 아버지와 함께 토의했다.

[3] Believing that he would have better career prospects, Kirkland moved to the United States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and found work at a photography studio.

Kirkland는 더 나은 직업 전망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 그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사진 스튜디오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4] When Look magazine hired him at age 24, he became their second-youngest photographer ever.

"Look" 잡지사가 24살 나이의 그를 고용했을 때 그는 그들의 역대 사진작가 중 두 번째로 어렸다.

[5] His photos taken of Marilyn Monroe in 1961 became iconic almost instantly.

그가 1961년에 찍은 Marilyn Monroe 사진은 거의 즉시 상징적인 것이 되었다.

[6] Kirkland spent his weeks shooting day-to-day life across the United States and his weekends in exotic locations.

Kirkland는 미국 전역에서 주중을, 이국적인 장소에서 주말을 보내면서 일상의 삶을 찍었다.

[7] His photo essays could run up to a dozen pages and were seen by more than half of all Americans.

그의 포토 에세이는 12페이지에 달했고 전체 미국인들 중 절반이 넘는 이들이 그것을 보았다.

[1] Digital technologies are essentially related to metaphors, but digital metaphors are different from linguistic ones in important ways.

디지털 기술은 근본적으로 은유와 관련되어 있지만, 디지털 은유는 중요한 면에서 언어적 은유와 다르다.

[2] Linguistic metaphors are passive, in the sense that the audience needs to choose to actively enter the world proposed by metaphor.

언어적 은유는 독자가 은유에 의해 제시된 세계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도록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수동적이다.

[3] In the Shakespearean metaphor "time is a beggar," the audience is unlikely to understand the metaphor without cognitive effort and without further engaging Shakespeare's prose.

"시간은 구걸하는 자다"라는 셰익스피어의 은유에서 독자는 인지적인 노력 없이는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산문을 더 끌어들이지 않고는 은유를 이해할 것 같지 않다.

[4] Technological metaphors, on the other hand, are active (and often imposing) in the sense that they are realized in digital artifacts that are actively doing things, forcefully changing a user's meaning horizon.

반면에 기술적 은유는 사용자의 의미의 지평을 강력하게 바꾸면서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디지털 인공물에서 그것이 실현된다는 점에서 능동적이다. (그리고 종종 강요적이다.)

[5] Technological creators cannot generally afford to require their potential audience to wonder how the metaphor works; normally the selling point is that the usefulness of the technology is obvious at first glance.

기술적인 창작자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잠재적인 독자에게 어떻게 은유가 작용하는지 궁금해하도록 요구할 여유가 없고, 일반적으로 매력은 기술의 유용성이 첫눈에 분명하다는 것이다.

[6] Shakespeare, on the other hand, is beloved in part because the meaning of his works is not immediately obvious and requires some thought on the part of the audience.

반면에 셰익스피어는 부분적으로는 그의 작품의 의미가 즉각적으로 분명하지 않고 독자 측에서 어느 정도의 생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1] Herbert Simon won his Nobel Prize for recognizing our limitations in information, time, and cognitive capacity.

Herbert Simon은 정보, 시간, 그리고 인지적인 능력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그의 노벨상을 받았다.

[2] As we lack the resources to compute answers independently, we distribute the computation across the population and solve the answer slowly, generation by generation.

우리는 독립적으로 해답을 계산하기 위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인구에 걸쳐 복잡한 계산을 분배하고 세대에 걸쳐 해답을 천천히 풀어 낸다.

[3] Then all we have to do is socially learn the right answers.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은 올바른 해답을 사회적으로 배우는 것이다.

[4] You don't need to understand how your computer or toilet works; you just need to be able to use the interface and flush.

여러분은 여러분의 컴퓨터 혹은 변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은 단지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고 (변기의) 물을 내릴 수 있기만 하면 된다.

[5] All that needs to be transmitted is which button to push — essentially how to interact with technologies rather than how they work.

전달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어떻게 그것들이 작동하는지보다는 기술과 상호 작용하는 방법이다.

[6] And so instead of holding more information than we have mental capacity for and indeed need to know, we could dedicate our large brains to a small piece of a giant calculation.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적 수용을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리고 정말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는 것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큰 두뇌를 거대한 계산의 작은 조각에 바칠 수 있다.

[7] We understand things well enough to benefit from them, but all the while we are making small calculations that contribute to a larger whole.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이득을 얻기에 충분할 정도로 사물을 잘 이해하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더 큰 전체에 기여하는 작은 계산을 하고 있다.

[8] We are just doing our part in a larger computation for our societies' collective brains.

우리는 우리 사회의 집합적인 두뇌를 위한 더 큰 복잡한 계산에서 단지 우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1] The best defence most species of octopus have is to stay hidden as much as possible and do their own hunting at night.

대부분의 문어 종(種)이 가진 최고의 방어는 가능한 한 많이 숨어 있는 것과 밤에 그들 자신의 사냥을 하는 것이다.

[2] So to find one in full view in the shallows in daylight was a surprise for two Australian underwater photographers.

그래서 낮에 얕은 곳에서 전체가 보이는 문어를 발견한 것은 두 명의 호주 수중 사진작가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다.

[3] Actually, what they saw at first was a flounder.

사실 그들이 처음에 봤던 것은 넙치였다.

[4] It was only when they looked again that they saw a medium-sized octopus, with all eight of its arms folded and its two eyes staring upwards to create the illusion.

오직 그들이 다시 봤을 때서야 그들은 중간 크기의 문어를 보았고 착시를 만들기 위해 그것의 여덟 개의 모든 팔이 접혀 있었고 그것의 두 눈이 위쪽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5] An octopus has a big brain, excellent eyesight and the ability to change colour and pattern, and this one was using these assets to turn itself into a completely different creature.

문어는 큰 뇌, 뛰어난 시력과 색깔과 패턴을 바꾸는 능력을 지니고 있고, 이것은 스스로를 완전히 다른 생물체로 바꾸기 위해 이러한 이점을 사용하고 있었다.

[6] Many more of this species have been found since then, and there are now photographs of octopuses that could be said to be transforming into sea snakes.

이 종의 더 많은 것들이 그때 이후로 발견되어 왔으며 지금은 바다뱀으로 변신하는 중이라고 말해질 수 있는 문어의 사진이 있다.

[7] And while they mimic, they hunt — producing the spectacle of, say, a flounder suddenly developing an octopodian arm, sticking it down a hole and grabbing whatever's hiding there.

그리고 그들이 모방하는 동안에 그들은 사냥을 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넙치가 갑자기 문어 다리 같은 팔을 펼치며 그것을 구멍으로 찔러 넣어 그곳에 숨어 있는 무엇이든지 움켜잡는 광경을 만들어 낸다.

[1] How much we suffer relates to how we frame the pain in our mind.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는지는 우리가 고통을 우리의 마음에서 어떻게 구성하는지와 관련된다.

[2] When 1500m runners push themselves into extreme pain to win a race — their muscles screaming and their lungs exploding with oxygen deficit, they don't psychologically suffer much.

1500미터 달리기 선수가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 그들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그들의 폐가 산소 부족으로 폭발하면서, 스스로를 극심한 고통으로 밀어붙일 때, 그들은 정신적으로 많이 고통받지 않는다.

[3] In fact, ultramarathon runners — those people who are crazy enough to push themselves beyond the normal boundaries of human endurance, covering distances of 50–100km or more over many hours, talk about making friends with their pain.

사실 울트라 마라톤 선수들은 즉, 인간 인내력의 정상적 경계를 넘어서 스스로를 밀어붙일 만큼 충분히 열정적인 사람들은 많은 시간 동안 50에서 100킬로미터 혹은 그 이상의 거리를 가지만 그들의 고통과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4] When a patient has paid for some form of passive back pain therapy and the practitioner pushes deeply into a painful part of a patient's back to mobilise it, the patient calls that good pain if he or she believes this type of deep pressure treatment will be of value, even though the practitioner is pushing right into the patient's sore tissues.

한 환자가 특정 형태의 수동적 등 통증 치료에 돈을 지불했고 의사가 그것을 풀어 주기 위해 환자 등의 아픈 부분을 깊게 눌렀을 때, 비록 의사가 환자의 아픈 조직을 직접적으로 누르고 있을지라도, 만약 그 또는 그녀가 이러한 종류의 깊은 압박 치료법이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환자는 그것을 좋은 아픔이라고 부른다.

[1] When I worked for a large electronics company that manufactured laser and inkjet printers, I soon discovered why there are often three versions of many consumer goods.

내가 레이저와 잉크젯 프린터를 생산했던 큰 전자 회사에서 일했을 때 나는 많은 소비 상품의 세 가지 버전이 종종 있는 이유를 곧 발견했다.

[2] If the manufacturer makes only one version of its product, people who bought it might have been willing to spend more money, so the company is losing some income.

만약 생산자가 그 제품의 오직 한 가지 버전만 만든다면 그것을 구매했던 사람들은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쓰려고 했을 수도 있어서 회사는 일부 수입을 잃을 것이다.

[3] If the company offers two versions, one with more features and more expensive than the other, people will compare the two models and still buy the less expensive one.

만약 그 회사가 두 버전을 제공하는데 한 버전이 나머지보다 더 많은 기능과 더 비싼 가격을 가진다면, 사람들은 두 모델을 비교하고 여전히 덜 비싼 것을 살 것이다.

[4] But if the company introduces a third model with even more features and more expensive than the other two, sales of the second model go up; many people like the features of the most expensive model, but not the price.

하지만 만약 그 회사가 나머지 두 개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과 더 비싼 가격을 가진 세 번째 모델을 출시한다면 두 번째 모델의 판매가 증가하는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가장 비싼 모델의 기능을 좋아하지만 그것의 가격을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5] The middle item has more features than the least expensive one, and it is less expensive than the fanciest model.

중간 제품은 가장 저렴한 제품보다 더 많은 기능이 있고 가장 고급 모델보다는 덜 비싸다.

[6] They buy the middle item, unaware that they have been manipulated by the presence of the higher-priced item.

그들은 자신이 더 비싼 가격의 제품의 존재에 의해 조종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중간 제품을 구입한다.

[1] Onscreen, climate disaster is everywhere you look, but the scope of the world's climate transformation may just as quickly eliminate the climate-fiction genre — indeed eliminate any effort to tell the story of warming, which could grow too large and too obvious even for Hollywood.

영화상 기후 재난은 여러분이 보는 어디에나 있지만, 세계의 기후 변화의 범위는 그것만큼이나 빠르게 기후 픽션 장르를 없앨지도 모르고 실제로 온난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애 버리는데, 그것은 할리우드에서조차 너무 커지고 너무 명백해질 것이다.

[2] You can tell stories 'about' climate change while it still seems a marginal feature of human life.

기후 변화가 여전히 인간 삶의 주변적인 특징처럼 보이는 동안에 여러분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But when the temperature rises by three or four more degrees, hardly anyone will be able to feel isolated from its impacts.

하지만 기온이 3도 혹은 4도 이상 상승할 때는 아무도 그것의 영향으로부터 고립되었다고 느낄 수 없을 것이다.

[4] And so as climate change expands across the horizon, it may cease to be a story.

그리고 기후 변화가 지평선을 넘어 확장될 때 그것은 이야기가 되기를 멈출 것이다.

[5] Why watch or read climate fiction about the world you can see plainly out your own window?

왜 여러분 자신의 창문 밖으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기후 픽션을 보거나 읽겠는가?

[6] At the moment, stories illustrating global warming can still offer an escapist pleasure, even if that pleasure often comes in the form of horror.

비록 그 즐거움이 종종 공포의 형태로 올지라도 지금 당장은 지구 온난화를 묘사하는 이야기가 현실 도피적인 즐거움을 여전히 제공할 수 있다.

[7] But when we can no longer pretend that climate suffering is distant — in time or in place — we will stop pretending about it and start pretending within it.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기후 고통이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멀리 있다고 가장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가장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 내에서 가장하기 시작할 것이다.

[1] Today, the water crisis is political — which is to say, not inevitable or beyond our capacity to fix — and, therefore, functionally elective.

오늘날, 물 위기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지 않는, 즉 정치적인 것이고 따라서 기능적으로 선택적이다.

[2] That is one reason it is nevertheless distressing: an abundant resource made scarce through governmental neglect and indifference, bad infrastructure and contamination, and careless urbanization.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괴로운 한 가지 이유이다. 즉, 풍족한 자원이 정부의 소홀함과 무관심,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과 오염, 부주의한 도시화를 통해 부족하게 되었다.

[3] There is no need for a water crisis, in other words, but we have one anyway, and aren't doing much to address it.

다시 말해서 물 위기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겪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다.

[4] Some cities lose more water to leaks than they deliver to homes: even in the United States, leaks and theft account for an estimated loss of 16 percent of freshwater; in Brazil, the estimate is 40 percent.

일부 도시들은 그들이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누수로 인해 더 많은 물을 잃는다. 즉, 미국에서조차 누수와 도난은 담수의 16퍼센트의 추정된 손실을 차지하고 브라질에서는 그 추정치가 40퍼센트이다.

[5] Seen in both cases, as everywhere, the selective scarcity clearly highlights have-and-have-not inequities, leaving 2.1 billion people without safe drinking water and 4.5 billion without proper sanitation worldwide.

양쪽의 경우에서 보여지듯이 모든 곳에서처럼 선택적 부족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불평등을 분명히 강조하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21억명을 안전한 식수가 없고 45억 명을 적절한 위생이 없는 채로 둔다.

[1] As individuals, our ability to thrive depended on how well we navigated relationships in a group.
개인으로서 성공하려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집단 내에서 관계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에 달려 있었다.

[2] If the group valued us, we could count on support, resources, and probably a mate.
만약 그 집단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겼다면 우리는 지원, 자원, 그리고 아마도 짝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If it didn't, we might get none of these merits.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러한 이점들 중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4] It was a matter of survival, physically and genetically.
그것은 신체적으로 그리고 유전적으로 생존의 문제였다.

[5] Over millions of years, the pressure selected for people who are sensitive to and skilled at maximizing their standing.
수백만 년 동안 그러한 압박은 자신의 지위를 최대화하는 데 민감하고 능숙한 사람들을 선택했다.

[6] The result was the development of a tendency to unconsciously monitor how other people in our community perceive us.
그 결과는 우리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무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경향의 발달이었다.

[7] We process that information in the form of self-esteem and such related emotions as pride, shame, or insecurity.
우리는 자존감 그리고 자존심, 수치심 또는 불안 같은 관련된 감정의 형태로 그 정보를 처리한다.

[8] These emotions compel us to do more of what makes our community value us and less of what doesn't.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을 더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덜 하도록 강요한다.

[9] And, crucially, they are meant to make that motivation feel like it is coming from within.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것들은 그 동기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느끼게 만들도록 되어 있다.

[10] If we realized, on a conscious level, that we were responding to social pressure, our performance might come off as grudging or cynical, making it less persuasive.
우리가 사회적 압박에 반응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식적인 수준에서 깨닫는다면, 우리의 행동은 그것(그 동기)을 설득력이 떨어지게 만들면서 투덜대거나 냉소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1] Conventional medicine has long believed that depression is caused by an imbalance of neurotransmitters in the brain.

전통적인 의학은 우울증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오랫동안 믿어 왔다.

[2] However, there is a major problem with this explanation.

그러나 이 설명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3] This is because the imbalance of substances in the brain is a consequence of depression, not its cause.

이것은 왜냐하면 뇌 속 물질의 불균형은 우울증의 원인이 아니라 그것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4] In other words, depression causes a decrease in brain substances such as serotonin and noradrenaline, not a decrease in brain substances causes depression.

다시 말해서, 우울증이 세로토닌이나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뇌의 물질의 감소를 유발하는 것이지 뇌의 물질의 감소가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

[5] In this revised cause-and-effect, the key is to reframe depression as a problem of consciousness.

이 수정된 인과 관계에서, 핵심은 우울증을 의식의 문제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6] Our consciousness is a more fundamental entity that goes beyond the functioning of the brain.

우리의 의식은 뇌의 기능을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인 실체이다.

[7] The brain is no more than an organ of consciousness.

뇌는 의식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8] If it is not consciousness itself, then the root cause of depression is also a distortion of our state of consciousness: a consciousness that has lost its sense of self and the meaning of life.

만약 그것이 의식 그 자체가 아니라면, 우울증의 근본 원인 역시 우리의 의식 상태의 왜곡이며 즉, 자아감과 삶의 의미를 상실한 의식이다.

[9] Such a disease of consciousness may manifest itself in the form of depression.

그러한 의식의 질환이 우울증의 형태로 명백히 나타날 수 있다.

[1] The common accounts of human nature that float around in society are generally a mixture of assumptions, tales and sometimes plain silliness.

사회에 떠도는 인간 본성에 대한 흔한 설명은 일반적으로 가정, 이야기, 그리고 때로는 순전한 어리석음의 혼합이다.

[2] However, psychology is different.

그러나, 심리학은 다르다.

[3] It is the branch of science that is devoted to understanding people: how and why we act as we do; why we see things as we do; and how we interact with one another.

그것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즉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왜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는지, 우리가 왜 보는 대로 사물을 보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 상호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전념하는 과학 분야이다.

[4] The key word here is 'science.'

여기서 핵심어는 '과학'이다.

[5] Psychologists don't depend on opinions and hearsay, or the generally accepted views of society at the time, or even the considered opinions of deep thinkers.

심리학자들은 의견과 소문, 혹은 당대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 혹은 심지어 심오한 사상가들의 숙고된 의견에 의존하지 않는다.

[6] Instead, they look for evidence, to make sure that psychological ideas are firmly based, and not just derived from generally held beliefs or assumptions.

대신에 그들은 심리학적 개념이 단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신념이나 가정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확고하게 기반을 두고 있는지 확신하기 위해 증거를 찾는다.

[7] In addition to this evidence-based approach, psychology deals with fundamental processes and principles that generate our rich cultural and social diversity, as well as those shared by all human beings.

이러한 증거 기반 접근법에 더하여 심리학은 모든 인간에 의해 공유되는 근본적인 과정과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풍부한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을 만들어 내는 것들을 다룬다.

[8] These are what modern psychology is all about.

이것들은 현대 심리학이 무엇인지 보여 준다.

[1] Life is what physicists might call a 'high-dimensional system,' which is their fancy way of saying that there's a lot going on.

생명은 물리학자들이 '고차원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데 이는 많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들의 멋진 방식이다.

[2] In just a single cell, the number of possible interactions between different molecules is enormous.

단 하나의 세포 내에서도 여러 분자 간의 가능한 상호 작용의 수는 매우 크다.

[3] Such a system can only hope to be stable if only a smaller number of collective ways of being may emerge.

이러한 시스템은 더 적은 수의 존재의 집합적인 방식이 나타날 때만 오직 안정적이기를 기대할 수 있다.

[4] For example, it is only a limited number of tissues and body shapes that may result from the development of a human embryo.

예를 들어 인간 배아의 발달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제한된 수의 조직과 신체 형태이다.

[5] In 1942, the biologist Conrad Waddington called this drastic narrowing of outcomes canalization.

1942년에 생물학자 Conrad Waddington은 이러한 극적인 결과의 축소를 '운하화'라고 불렀다.

[6] The organism may switch between a small number of well-defined possible states, but can't exist in random states in between them, rather as a ball in a rough landscape must roll to the bottom of one valley or another.

오히려 울퉁불퉁한 경관에 있는 공이 이 계곡 혹은 또 다른 계곡의 바닥으로 반드시 굴러가야 하는 것처럼, 유기체는 적은 수의 명확하게 정의된 가능한 상태 사이에서 바뀔 수 있지만 그것들 사이에 있는 무작위의 상태로 존재할 수는 없다.

[7] We'll see that this is true also of health and disease: there are many causes of illness, but their manifestations at the physiological and symptomatic levels are often strikingly similar.

우리는 이것이 건강과 질병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질병의 많은 원인이 있지만, 그것들의 생리적이고 증상적인 수준에서의 발현은 종종 놀랍도록 유사하다.

[1] Punishing a child may not be effective due to what Alvaro Bilbao, a neuropsychologist, calls 'trick-punishments.'

아이를 벌주는 것은 신경심리학자 Alvaro Bilbao가 '트릭 처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인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2] A trick-punishment is a scolding, a moment of anger or a punishment in the most classic sense of the word.

트릭 처벌은 꾸짖음, 순간의 화 혹은 (처벌이라는) 단어의 가장 전형적인 의미에서의 처벌이다.

[3] Instead of discouraging the child from doing something, it encourages them to do it.

아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단념시키는 대신 트릭 처벌은 그들이 그것을 하도록 장려한다.

[4] For example, Hugh learns that when he hits his little brother, his mother scolds him.

예를 들어 Hugh는 그가 자신의 남동생을 때릴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꾸짖는다는 것을 배운다.

[5] For a child who feels lonely, being scolded is much better than feeling invisible, so he will continue to hit his brother.

외로움을 느끼는 아이에게는 꾸중을 듣는 것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나아서 그는 그의 남동생을 때리는 것을 계속할 것이다.

[6] In this case, his mother would be better adopting a different strategy.

이 경우에, 그의 어머니는 다른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이다.

[7] For instance, she could congratulate Hugh when he has not hit his brother for a certain length of time.

예를 들어 그녀는 Hugh가 그의 남동생을 일정 기간 동안 때리지 않았을 때 그를 자랑스러워해 줄 수 있다.

[8] The mother clearly cannot allow the child to hit his little brother, but instead of constantly pointing out the negatives, she can choose to reward the positives.

어머니는 분명 아이가 그의 남동생을 때리는 것을 내버려둘 수 없고, 그녀는 부정적 측면을 계속 지적하는 대신에 긍정적 측면을 보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9] In this way, any parent can avoid trick-punishments.

이렇게 어느 부모도 트릭 처벌을 피할 수 있다.

[10] →A trick-punishment reinforces the unwanted behavior of a child, which implies that parents should focus on reducing the attention to negatives while rewarding positive behaviors.

→트릭 처벌이 아이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강화하는데, 이는 부모가 긍정적인 행동을 보상하면서 부정적 측면에 관한 관심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41~42

[1] From an early age, we assign purpose to objects and events, preferring this reasoning to random chance.

어릴 때부터 우리는 사물과 사건에 목적을 부여하며, 무작위적인 우연보다 이러한 논리를 선호한다.

[2] Children assume, for instance, that pointy rocks are that way because they don't want you to sit on them.

예를 들어 뾰족한 돌은 아이들이 그 위에 앉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생겼다고 그들(아이들)은 가정한다.

[3] When we encounter something, we first need to determine what sort of thing it is.

우리가 무언가를 마주칠 때 우리는 먼저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4] Inanimate objects and plants generally do not move and can be evaluated from physics alone.

무생물과 식물은 일반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물리적 현상만으로 평가될 수 있다.

[5] However, by attributing intention to animals and even objects, we are able to make fast decisions about the likely behaviour of that being.

그러나 동물과 심지어 사물도 의도가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그 존재가 할 것 같은 행동에 대해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6] This was essential in our hunter-gatherer days to avoid being eaten by predators.

이는 우리의 수렵 채집 시절에 포식자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다.

[7] The anthropologist Stewart Guthrie made the point that survival in our evolutionary past meant that we interpret ambiguous objects as agents with human mental characteristics, as those are the mental processes which we understand.

인류학자 Stewart Guthrie는 인간의 정신적 특성이 우리가 이해하는 정신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화상 과거에서 생존이란 우리가 모호한 사물을 인간의 정신적 특성을 가진 행위자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8] Ambiguous events are caused by such agents.

모호한 사건은 이러한 행위자에 의해 발생한다.

[9] This results in a perceptual system strongly biased towards anthropomorphism.

이는 의인화에 강하게 편향된 지각 체계로 귀결된다.

[10] Therefore, we tend to assume intention even where there is none.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가 없는 곳에서도 의도를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11] This would have arisen as a survival mechanism.

이는 생존 메커니즘으로 발생해 왔을 것이다.

[12] If a lion is about to attack you, you need to react quickly, given its probable intention to kill you.

만약 사자가 당신을 막 공격하려 한다면 당신을 죽이려는 그것의 가능한 의도를 고려하여 당신은 빠르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13] By the time you have realized that the design of its teeth and claws could kill you, you are dead.

당신이 그것의 이빨과 발톱의 구조가 당신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즈음 당신은 죽어 있다.

[14] So, assuming intent, without detailed design analysis or understanding of the physics, has saved your life.

따라서 상세한 구조 분석 또는 물리적 현상의 이해 없이 의도를 부여하는 것이 당신의 목숨을 구해 왔다.